

대리적 노스텔지어 관점에서의 철도문화공간 연구

김지영*†

초 록 최근 KTX 개통 2주년을 맞아 문화역서울284를 중심으로 철도문화전이 한창이다. 철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기억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문화공간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감각적 자극은 비단 직접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없는 고객에게까지 대리적 노스텔지어로 작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문화공간에 적용된 시대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각종 기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티프를 추출하여 장소노스텔지어와 애착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사회문화 전반에 노스텔지어 감성을 소구하는 뉴트로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철도 산업의 고객경험 증대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단독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대학 철도경영·물류학과 (jkim@ut.ac.kr)